

YTN ‘민심 2022 지방선거’ 개표방송 제작기

글: 박해석·김봉수·유재원 YTN 기술국



그림 1. YTN 지방선거 민심 2022

선거방송은 선거 결과를 시청자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목표로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방송기술의 잔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YTN 민심 2022 지방선거’의 콘셉트는 ‘연결’로 정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하나의 대한민국을 완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연결’이라는 추상적 단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민심을 잇다’라는 카피를 뽑아내 각 콘텐츠에 활용하였고 상징물로 다리를 사용했다. 이외에 연결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물로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의 수단이 되는 전화, 편지, SNS 등을 오브제로 활용하고자 했다.

대선 방송이 후보 2명(혹은 그 이상)을 놓고 규모 있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지방선거는 지역별 분석들이 의외의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어서 터치스크린과 미디어월 등의 효율적 활용이 거대한 스크린보다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YTN은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직후, 8년 동안 사용해 왔던 제1스튜디오를 6월 7일 편성 개편에 맞춰 조명, 미디어월, 세트 등 전면 개선공사에 들어갔고 공사 중간에 제1스튜디오를 6.1 지방선거에 사용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24시간 뉴스 생방송을 하는 YTN은 공사 기간에 발생하는 소음, 먼지, 진동, 전기 등 안정적인 생방송 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개선공사를 마친 제1스튜디오는 ‘민심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선거 메인 스튜디오의 보조 스튜디오로 계획되었고 세트는 크게 레이저 리어 프로젝션 비디오월, 터치스크린, LED 미디어월로 구성해서 선거방송의 다

양한 볼거리와 정보 전달을 위해 크기와 방식이 다른 3개의 스크린 구역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3개의 스크린 구역으로 나뉜 세트는 스테디캠과 지미집을 활용해 코너와 코너를 이어줌으로써 ‘연결’을 콘셉트로 하는 선거방송에 통일성을 주었다.



그림 2. 제1스튜디오 공사



그림 3. 민심 연구소로 사용된 제1스튜디오

이번 개표방송에서 YTN이 집중했던 각 제작 요소를 살펴보면, 주요 제작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부조정실별 진행 내용과 지방선거 방송 일정을 통해 전체 제작 상황을 살펴보자.

	평상 시	선거방송 시
1 부조	생방송 뉴스 진행	민심 연구소 레이저 리어 프로젝션 비디오월, LED 미디어월,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콘텐츠 구성
2 부조	생방송 뉴스 진행	선거방송 메인 부조 생방송 개표율, 출연자와 심층 선거 분석, 일반 뉴스 LED 리어 프로젝션 비디오월을 이용한 브리핑, AR
3 부조	녹화물 제작	그린 크로마를 이용한 선거 사전 제작물 제작
4 부조	VR 스튜디오	블루 크로마를 이용한 VR 제작물 사전 제작
YTN Hall	제작물 제작	사전 제작 콘텐츠 제작

표 1. 부조정실별 진행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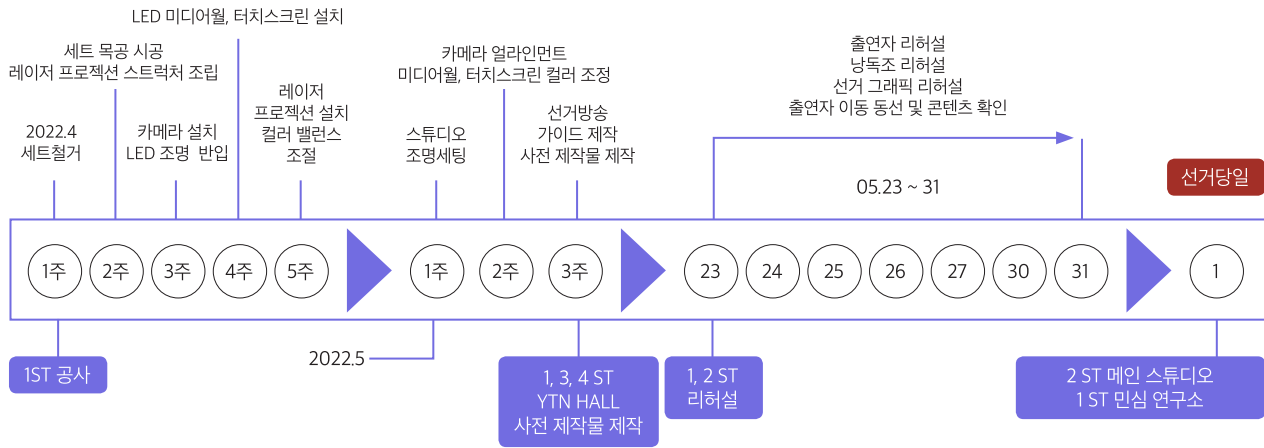


그림 4. YTN 지방선거 개표방송 제작 일정

레이저 리어 프로젝션 미디어월

14m×3m 크기의 바코 레이저 리어 프로젝션 미디어월 장비를 활용하여 디스플레이 월의 넓은 화면 특성을 살려 활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였고, 진행자가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월에 정보를 표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개표 카운트 다운, 선거 인증샷, 개표 추이 분석, 역대 개표율 등 많은 정보를 전체 스크린에 표출하거나 12군데의 주요 관심 지역을 한 번에 연결하는 화면 분할 방식으로 이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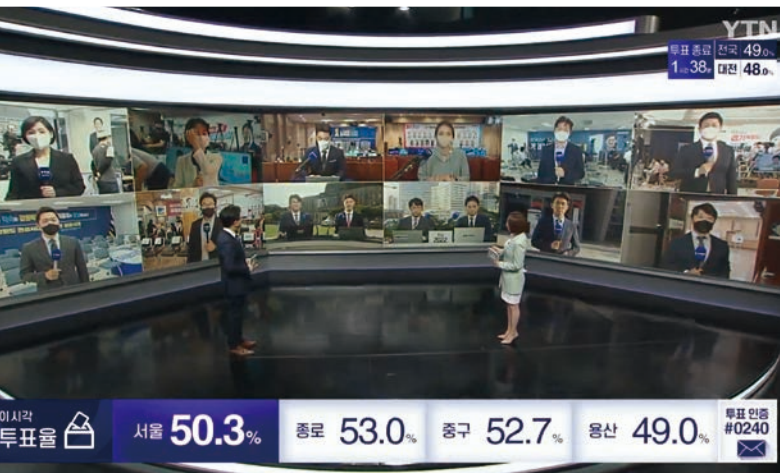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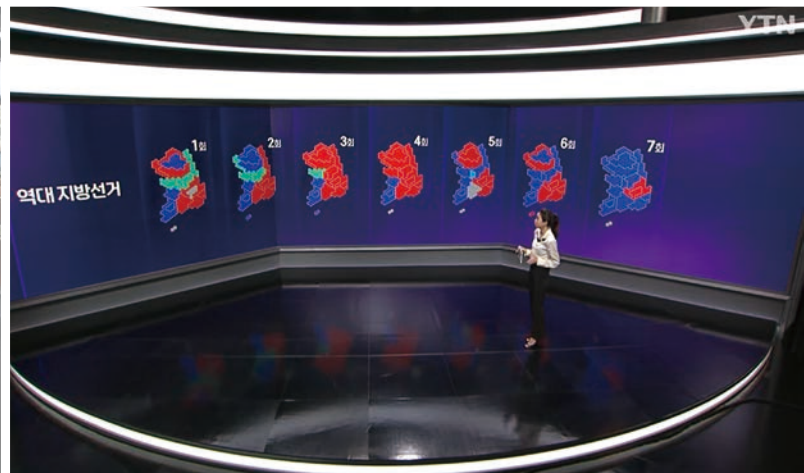


그림 5. 레이저 리어 프로젝션 미디어월



LED 미디어월

LED 미디어월은 5m×2.7m 크기, 1.2mm 픽셀 피치의 LED로 구성했다. 선거 투표율 같은 역대 선거 관련 스토리텔링과 주요 관심 주자의 인물 분석과 개표율 전망 추이 등 LED 미디어월을 이용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화면 구성으로 시청자가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업체 <스피치로그>에 의뢰해 받은 자료 일부를 ‘빅데이터로 본 키워드 점유율’이라는 앵커리포트로 구성했으며 온라인에서 후보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언급되고 있는지를 보기 쉽게 표현하고자 했다. 또한 트위터와 유튜브 유명 커뮤니티에서 키워드를 고르는 방식을 사용해 새로운 미디어의 변화에 대응하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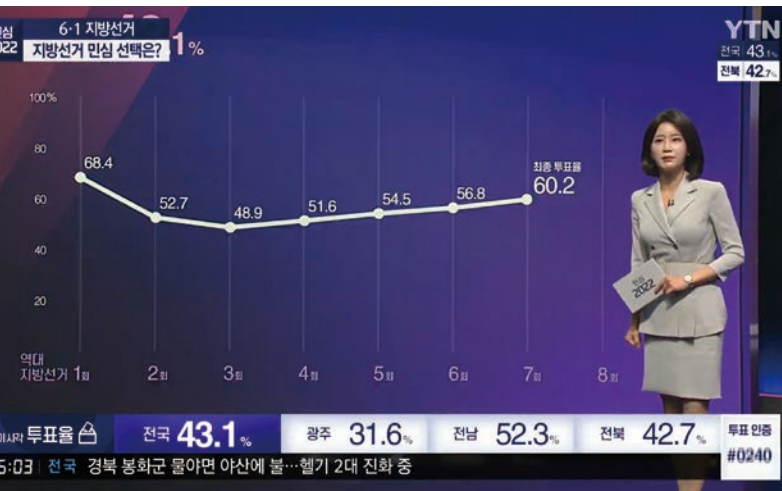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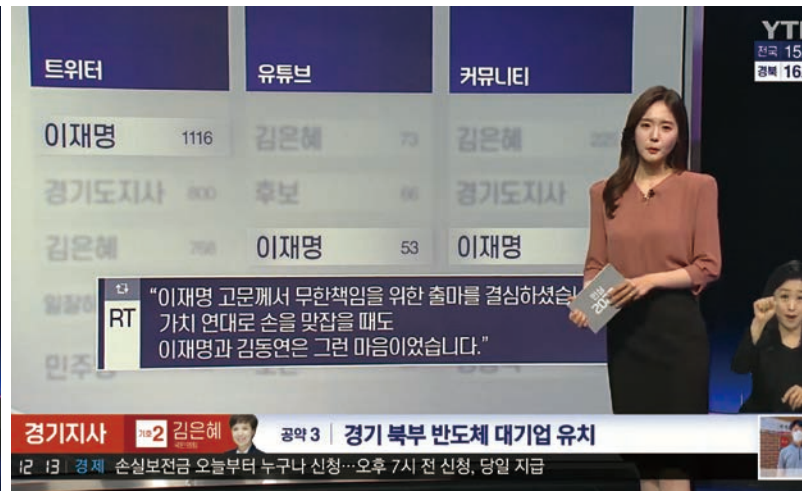


그림 6. LED 미디어월 활용 장면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은 86인치의 터치 모니터 장비로 운용하였다. Vizrt로 개발한 터치스크린 메뉴 구성은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하여 표출하는 것과 사전 제작 그래픽 2가지로 구성되었다. 투표율, 과거 선거와의 비교, 이슈 지역, 관심 주자의 키워드 등을 구성하여 활용하였으며 스테디 캠을 이용해 좀 더 역동적인 화면 구성으로 차별성을 두었다. ‘관심 주자 키워드’는 각 후보의 연관 검색어 가운데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키워드를 골라서 관련 발언을 다뤘다.



그림 7. 터치스크린 활용



‘민심 연구소’는 LED, 터치스크린, 레이저 리어 프로젝션 미디어월을 하나의 스튜디오에 구성하여 원 테이크 카메라 워킹을 통해 선거의 주제인 ‘연결’을 표현하였다. 또한 스튜디오 크기 대비 넓어 보이게 하는 화면 구성을 만들어 스튜디오 전체 공간 활용에 실험적 변화의 기회가 되었다.

VR, AR 스튜디오

VR 스튜디오에서는 선거 당일 ‘주목, 이 지역’이라는 코너를 통해 용산, 분당, 계양 등 이슈 지역 주자의 사전 판세를 분석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지역을 뽑아 가상 스튜디오에서 설명했다.

AR 메인스튜디오는 단조로운 뉴스 느낌의 메인 스튜디오에 커다란 기표용 도장과 상단 스크린을 AR 그래픽으로 위치시켜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림 8. VR/AR 스튜디오

사전 제작

선거방송은 투표가 종료되면 모든 관심이 개표 상황에 집중되지만 투표가 종료되기 전까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다양한 기획물이 사전 제작된다.

민심을 잇다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을 잇는다는 의미의 ‘다리’ 이미지를 이용한 ‘민심을 잇다’는 선거방송 콘셉트에 맞게 전국 민심을 이어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선택했다.

시각적으로도 시대와 공간을 달리한 다양한 다리의 풍광이 보는 즐거움을 더하게 했으며, 7개 광역단체장을 볼 수 있는 각 지역의 주목할 만한 다리 사진 소스에 조명 효과를 추가하여 ‘잇다’를 비주얼적으로 표현해 영상구성에 깊이감을 더하였다.



그림 9. 사전 제작물 - 민심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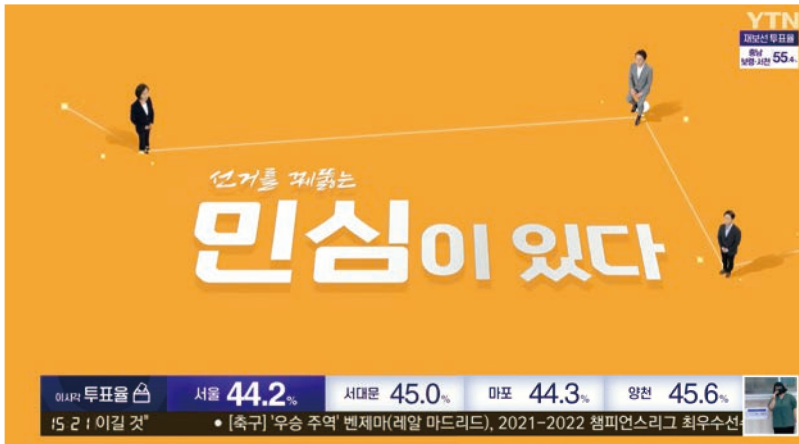


그림 10. 사전 제작물 - 민심이 있다



그림 11. 사전 제작물 - 세상을 바꾸는 마술

민심이 있다

세대별 지지성향, 지역별 지지성향을 분석하는 사전 제작물인 ‘민심이 있다’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었던 민주당 광풍이 이어질 것인가”,

“2030 성별 대결은 이번에도 나타날까?”,

“소수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승리할 것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영상이 제작되었다.

뉴스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앵글과 색을 이용한 영상을 하고자 했고 선명한 파란색, 노란색을 사용하여 의도를 완성하였다.

세상을 바꾸는 마술

선거가 시작되면 방송사는 2D, 3D 그래픽을 이용해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노력한다. ‘세상을 바꾸는 마술’은 이런 그래픽 중심의 선거 콘텐츠에서 벗어난 새로운 콘텐츠 고민에서 기획되었다. 11가지의 현란한 마술을 지역과 연관해 다양한 컬러로 실시간 투표율을 표현했다.

마치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미련이 남는다. 이번 6.1 지방선거는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스튜디오 개선 공사와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더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다. 공사의 마감을 선거 리허설 날짜에 맞춰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고민도 못 했고 아이디어가 될만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도 부족했다.

객관적으로 타사의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의 선거 방송은 아니었지만, 시청자에게 선거의 의미와 개표방송 시청의 재미,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찾아내려고 노력했던 선거방송이 아니었을까 한다. 앞으로의 선거방송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YTN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다음 선거는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방송기술인들이 새롭게 이어가기를 기대하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다.